



방향용 제품

향수, 오드 퍼퓸, 오드 뚜왈렛, 오드 콜로뉴



01

제품에 대하여

- 천연향료나 합성향료 등을 에탄올에 녹인 액체로, 향료의 비율(부향률)에 따라 15~30% 함유된 향수(퍼퓸), 7~15% 함유된 오드 퍼퓸, 5~10% 함유된 오드 뚜왈렛, 2~5% 함유된 오드 콜로뉴로 크게 4종류로 분류된다. 부향률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에 따라 비율이 각각 다르고, 샤워 후에 사용하는 샤워 콜로뉴나 남성용 콜로뉴 등은 물을 함유하며, 에탄올 함유율이 약 50%인 제품도 있다.
- 향수 등 작은 병에 들어있는 제품은 소량의 액체를 손끝에 묻혀 귀 뒤 등에 직접 도포한다. 오드 뚜왈렛 등의 스프레이 타입은 신체 또는 의류에 분무한다. 샤워 콜로뉴 등의 병 제품은 액체를 손에 묻혀 신체에 직접 바른다.
- 방향 화장품은 주로 피부에 사용하지만, 모발에 분무하는 헤어 콜로뉴 제품도 있다.
- 방향 파우더, 연향, 젤 콜로뉴 등 액체 이외의 제품도 있다.

소아는 알코올의 감수성이 높고, 저혈당성의 경련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경구 노출



- 토하게 하지 말고, 입 안의 물질을 제거하고 입을 행군다.

즉시 진료

- 구토, 안면홍조, 흥분 상태 등이 있는 경우, 기침 등 잘못 삼켰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음주력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증상이 있으면 검사한다).
- 증상이 없더라도 마신 경우(체중 1kg당 0.5mL 이상), 섭취량이 불명확한 경우.

경과 관찰 핏은 정도로 증상이 없는 경우(수 시간은 주의한다).



흡입한 경우



- 스프레이 제품의 미스트나 알코올의 증기를 흡입할 가능성이 있다.
- 향기로 인한 불쾌감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을 위한 진료 목 통증, 기침, 불쾌감이 있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눈에 들어간 경우



-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여, 즉시 눈을 씻는다.

즉시 진료 눈 뜨기 곤란한 경우, 눈 씻기가 어려운 경우, 콘택트렌즈가 빠지지 않는 경우

만약을 위한 진료 세안 후에도 통증, 충혈이 있는 경우



피부 노출



만약을 위한 진료 세척 후에도 발적, 통증, 발진이 있는 경우, 술에 취한 듯한 증상이 있는 경우

계면활성제의 자극 작용에 의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경구

- 에탄올의 중추신경 억제에 의한 중독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소아는 알코올 감수성이 높다. 특히 유아와 소아는 저혈당성 경련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혈당 저하에 주의가 필요하다.
- 혈중 알코올 농도

- 0.01% 전후 가벼운 취기, 상쾌한 기분	- 0.30% 전후 대화 불명료, 지각 상실, 시각의 흐트러짐
- 0.05% 전후 가벼운 어지러움	- 0.40% 전후 저체온, 저혈당, 근육 조절 부전, 경련, 동공산대
- 0.10% 전후 지각 능력 저하 및 반응 둔화	- 0.70% 전후 의식장애, 반사 감퇴, 깊은 혼수, 호흡부전, 사망
- 0.15% 전후 감정 불안정	
- 0.20% 전후 비틀거림, 구역질, 구토, 정신착란	
- 기타 증상으로 피부 홍조, 저혈압, 빠른맥, 대사성산증, 케톤산증 등이 있다.
- 혼수가 12시간 이상 지속되면 예후불량으로 여겨진다.
- 잘못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흡입

- 에탄올의 증기나 스프레이 제품의 미스트를 흡입하면 상기도의 자극 때문에 기침, 목 통증 등이 생길 수 있다.
- 향에 따라 불쾌감 등 심리적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눈

- 에탄올에 의한 일과성 통증이나 자극감이 있다.



피부

- 에탄올에 의한 자극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에탄올 함유율이 높은 제품을 마신 경우는 알코올의 독성을 고려해야 한다.

에탄올

- 95~99%의 에탄올은 성인은 체중 1kg당 1mL의 섭취로 경증~중경증의 중독이, 소아는 1kg당 0.5mL의 섭취로 심각한 중독 증상이 발현한다고 알려져 있다. 단, 개인차는 크며, 중독량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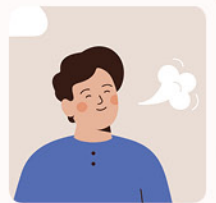
경구

- ① **제거:** 입 안에 남아 있는 것을 뱉게 한다. 소아나 고령자의 경우는 입 안을 확인하여 제거하고, 닦아낸다.
- ② **행굼:** 물로 입을 행구고, 가글한다. 가글할 수 없는 경우는 젖은 거즈로 닦아낸다.
- ③ **수분섭취:**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다. 보통대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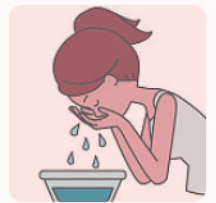
흡입

-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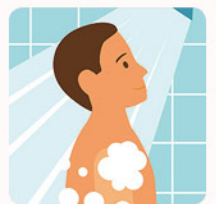
눈

-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여, 즉시 물로 씻는다.
-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쉽게 뺄 수 있으면 뺀다.



피부

- ① **제거:** 피부에 부착된 것을 제거하고 닦아낸다. 부착된 의복은 벗는다.
- ② **행굼:** 물로 충분히 씻는다.



에탄올

【흡수】 위,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며,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은 30분~2시간이다. 흡입이나 경피에 의해 흡수된다.

【대사】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대사되며, 이후 초산으로 대사되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배설】 약 5~10%는 미변화체로 날숨, 소변, 땀, 대변으로 배설된다.

**국외(일본중독정보센터) 사고사례**

연간 건수 약 60여 건(일반 98%, 의료기관 2%)

환자 연령층 1세 미만 20%, 1~5세 79%, 20~64세 1%

사고 상황 소아나 치매가 있는 고령자의 잘못된 섭취 98%(활았거나 1번 분무한 경우), 오용 2%(눈에 들어간 경우)

증상 출현 11%(구강의 위화감, 기침, 구역질, 구토, 안면홍조, 불쾌감, 졸림, 눈 통증·충혈 등)

【1986~2009년까지 24년간 파악한 소아(12세 이하)의 사고사례】

- 향수·오드 콜로뉴에 의한 사례는 46건으로 심각한 사례는 없었다.

【1986~2010년까지 25년간 파악한 고령자(65세 이상)의 사고사례】

- 향수·오드 콜로뉴에 의한 사례는 없었다.

생활화학제품 응급대처 가이드북

※ 증상이 보인다면 가까운 병원을 내원해주세요.

